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6.28~2017.7.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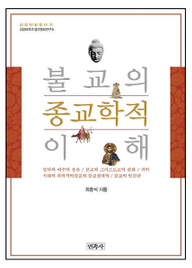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의재발견	우오가와유지	(주)조계종출판사
2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3	사는게내맘같지않을때힘이되는말	범수스님	담앤북스
4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5	홀가분한동행	종연스님	뜨란
6	야단법석(2)	법륜	정토
7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9	위대한스승청화큰스님	유철주	상상출판
10	우리가 사랑할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스님외	민족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불교와 개신교 비전은?… 자비와 사랑의 웃음 회복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최종석 지음 | 민족사 펴냄 | 2만 8천원



종교는 대단히 진지하고, 근엄하고, 엄숙하고, 보수적이고, 융통성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지를 가졌다. 따라서 종교적 교조(敎祖)나 절대자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근엄한 모습으로 상상 된다. 종교 속 인간도 유희적인 호모 루덴스(homo ludens)나 명랑한 호모 리센스(homo risens)가 아니라 근엄한 인간인 호모 그라비스(homo gravis)를 연상 한다.

그러나 앞으로 종교 간 배타주의를 넘어 서로 인류 공동의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해가야만 하는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붓다의 자비 웃음과 예수의 사랑 웃음을 회복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적 실천을 이룰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를 성스러운 것이라 여기고, 엄숙하고 경건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종교를 웃음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한다. 인간에게 벌주는 무섭고 엄한 존재, 인간을 넘어선 지고한 일자(一者)에 대한 외경심으로 사람들은 종교를 인간의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것으로 여긴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와 그리스도교 양쪽 모두에 해당한다.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의 저자 최종석 금강대 응용불교학과 교수는 이런 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책의 제 1부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글에서 '붓다와 예수의 웃음'이란 주제를 통해 종교서 웃음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성' 회복으로 보고, 종교서 웃음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복권한다. 웃음이야말로 종교 간에 팽배한 배타주의를 비롯한 모든 갈등의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책서 저자는 붓다의 웃음과 예수의 웃음을 비교하며, 예수의 웃음이 자기 비움서 오는 무화(無化)의 웃음, 해방과 사랑의 웃음이라면 붓다의 웃음은 무아(無我)의 해탈과 자비의 대자유를 보여 주는 웃음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붓다는 무명을 깨친 자이기에 무명의 삼독을 극복했으니, 진에인 화를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서 붓다는 끊임없이 웃고 있다. 이에 더해 붓다는 웃을 수 있을 때 웃지 않는 사람을 사특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웃음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경전 속에는 붓다가 미소 짓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지만, 한국서 붓다의 미소에 대한 연구로는 불상에 대한 미학적 연구가 전부다. 이 글은 붓다의 웃음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고 밝힌 최초의 글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신약성서서 예수가 웃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웃음은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복음서 안에서 십자가의 비극과 그 직전의 사건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불교의 '무아(無我)' 개념과 그리스도교의 자기 비움(kenosis)은 이런 자기 부정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나올 수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서 죽음을 맞은 것도, 붓다가 춘다의 공양을 받아들이면서 입멸을 맞은 것도 이런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책서 또 하나 주목한 것이 과학과 종교의 관계이다. 저자는 지금껏 종교서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즉 과학의 발달은 인간성 파괴와 함께 생태계의 파괴를 조장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간주하는 부정적 시각으로 일관돼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서 과학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종교서 웃음은 진정한 '종교성' 회복
웃음은 종교 간 모든 갈등 해결 방안
붓다의 웃음이 갖는 의미 정리 '주목'

교정되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학자들은 종교와 과학의 창조적 만남의 필요성을 주장 한다.

저자는 21세기 과학문명 시대에 종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며, 과학시대의 종교는 비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벗어나는 탈신화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신화적이며 상상력으로 이뤄진 교리는 탈신화화의 작업을 더욱 요청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스도교가 자신의 교리와는 거리가 먼 지동설과 진화론을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던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본다.

이렇게 과학시대의 종교는 교리체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요청받고 있다. 예컨대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 신체와 영혼이라는 이원론적 인간관에 대한 새 이해가 요구되고, 유전자공학의 발달로 인간복제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윤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윤회와 업에 대한 진지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처럼 과학의 발달과 함께 기존의 종교 교리체계는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 기존에는 종교서만 다루던 주제들, 즉 영혼이나 내세에 대한 주제들이 이제는 종교와 과학의 융합을 통해 해석의 지평을 넓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더해 저자는 이러한 과학시대에 동양의 종교 전통과 근대 문명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서구를 중심으로 연구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동양의 종교 전통 중에서도 특히 불교의 가르침은 매우 과학적이고, 과학시대의 미래지향적 종교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과학격의불교'를 통해 불교 교리의 과학적 해석의 단초를 열었을 때 가능하다. 저자는 과학시대의 불교는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과학적인 성과를 포괄해 과학적인 은유와 상징을 펼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불교를 '과학격의불교'라는 조어(造語)로 명명했다. 그는 과학격의불교는 과학적으로 불교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과학적 연구 성과에 대한 해석과 함께 그러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불교의 가르침서 제공한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았다. 저자는 과학시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학과 불교의 창조적 융합을 이룬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

불교의 자비심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식물뿐만 아니라 돌 · 물 · 흙에게도 미친다. 저자는 이 자비의 생태윤리가 인간중심적 사고서 야기된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생명체들이 공존 공생 하는 21세기의 시대적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할 종교적 윤리임을 강조한다. 인간중심적 환경윤리가 생태중심적 종교윤리로 승화돼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종교적 당위인 것이다. 이에 저자는 '생태보살' '환경보살'이란 조어를 통해 자연환경 회복에만 원(願)을 세운 보살이 아니라, 인간 환경 회복에도 원을 세운 보살상을 제시한다.

저자는 생태보살의 수행, 즉 생태보살도가 각 개인의 일상에서 이루질 때 청정불국토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불교 해탈의 생태적 해석을 통해 이 시대 해탈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생태의식의 종교문화화가 이 시대의 구원이요, 해탈이라는 것이다.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는 종교가 발딛는 현실적 제반 조건의 변화에 대한 폭넓고도 예리한 인식을 통해 나온 책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종교에 대한 기존 해석의 틀을 깨고,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하고, 과학만능시대의 불교의 인간관을 새롭게 조명하며, 생태계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석의 지평을 넓힌다. 뿐만 아니라 불교가 동북아시아로 전래되면서 변용되는 과정을 살피고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의 위상과 미래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달' 가리키는 150개의 친절한 손가락

이것이 선이다

심성일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 7500원



이 책은 옛 선사들의 문답과 일화 50편, 게송과 선시들 100편을 재료로 삼아 자기의 본래면목에 눈 뜨도록 친절히 안내한다. 진리는 무엇인지 모르고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지만, 바른 안내를 잘 따르면 지금 여기서 즉각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선불교 정신을 충실히 따르면서 지금 있는 자리서 진리를 알아차리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가리켜 보여 준다. 다양한 영적 전통 및 가르침들과 선(禪)을 공부한 뒤 진리에 눈을 뜬 저자의 직접 경험서 우러나온 지혜와 통찰들이 간결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총 2부로 이뤄져 있다. 1부 '깨달음의 인연'은 옛 선사들의 일화와 문답 50편을 소재로 하여 아상(我相) 너머에 있는 본래면목을 알아차리도록 안내한다. 경덕전등록, 오등회원, 총림성사, 조당집, 산암잡록, 연등회요, 종문무고, 대명고승전 외 다양한 문헌들의 기록에서 선정해 소개한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선문(禪門)의 일화들이 다수 실려 있어 옛 사람들이 먼저 걸어간 마음공부의 길을 참고할 수 있다. 2부 '깨달음의 노래'는 선사들의 게송과 선시(禪詩) 100편을 소재로 하여 지금 여기의 진실을 깨달아 자유에 이르도록 안내한다. 지공, 장경, 두순을 비롯한 중국의 옛 스님들, 도오겐, 뎃슈, 도오쿄를 비롯한 일본의 옛 스님들이 남긴 선시들도 적지 않지만, 신라시대의 부설 거사로부터 백운, 나옹 등 고려시대, 소요, 부휴, 서산, 사명, 보월 등 조선시대, 경허, 경봉, 효봉, 설봉, 혜암 등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선사들의 게송과 선시들을 찾아 소개하고 있어 더욱 반갑다.

저자의 언어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선불교의 정신을 충실히 따른다. 이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서 본성을 보게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해탈과 하나 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의 본래면목은 수행을 통해 닦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며, 이미 늘 여기에 있지만 간과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선지식은 그것을 가리킬 뿐이며, 우리의 할 일이란 그것을 알아차리고, 진실이 아닌 모든 개념과 견해를 비우는 것이 대부분이다. 흔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문답을 선문답(禪問答) 같다고 말한다. 그처럼 선문답은 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이나 대답이지만, 선사는 이런 대화를 통해 분명히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의 예로, 책에 소개된 〈종림성사〉 속 일화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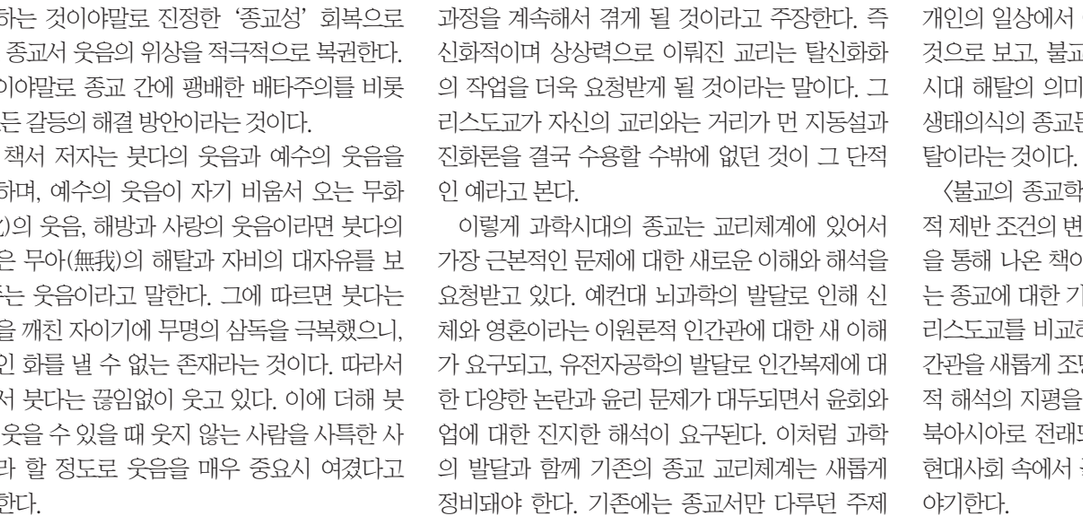
범치령이라는 사람이 내한 벼슬을 하다가 지방 태수로 나가는 길에 민 화상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던 중 탄식하며 말했다. "늘그막에 벼슬살이를 하느라 이 일을 알기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자 민 화상이 곧장 "내한!" 하고 불렀다. 범공이 "예."하고 대답하자 민 화상이 말했다. "멀지 않군요" 범치령은 벼슬살이, 즉 세간살이에 시달리다 보니 마음공부에 전념하기가 어려웠고, 수행을 등한히 하다 보니 자신이 도(道)에서 멀어졌다고 느꼈다. 수행을 중시하는 부류의 스승이라면 열심히 수행하라고 조언했을 법하지만, 진실에 눈을 뜬 선지식이었던 민 화상은 직지인심, 즉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보여 준다.

달을 가리키는 옛 선사들의 손가락
깨달음의 인연, 깨달음의 노래 모음

민 화상은 이 짧은 문답을 통해 결코 자신과 떨어져 있지 않은 '그것'을 분명히 알려 주었지만, 여느 선문답들과 마찬가지로 공부가 깊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공부 선배의 도움말이며, 일례로 지은이는 여기에서 이렇게 힌트를 준다.

"'예' '마른 똥막대기' '여기서 홍도까지 나흘 걸린다'는 말만 보면 그 길이나 내용이 다릅니다. 말의 길이나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그 모든 말들은 말이 아닌 엄연한 사실, 결코 멀리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본래면목을 곧장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생각,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모든 현상들이 바로 지금 어디에서 출몰하고 있습니까?" 이 책에 실린 150편의 글은 모든 것이 나오고 돌아가는 근원이자 바탕인 '달'을 가리키는 150개의 친절한 손가락이다. 옛 선사들이 남긴 글과 어우러진 지은이의 간곡한 도움말들은 자기의 진실에 관심이 있는 구도자라면 어렵지 않게 자신의 본래면목을 눈치채도록 도울 것이다.

김주일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미아리고개
아리랑고개
성신여대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
성북구청